MULTI ASSET STRATEGY

2026. 3. 17.

글로벌 투자전략팀

유승민 chief strategist
research@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이란 전쟁, 높아진 휴전 확률

미국이 주도권 확보

- 이란 모즈타바 정권의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하르그' 섬은 매우 중요
- 지난주 미국의 하르그 공격은 향후 양국의 협상 가능성을 높일 사건
- 미국과 이란의 협상과 휴전의 성사 확률을 기존 20%에서 60%로 상향함

지난 주말 미국이 이란의 에너지와 군사적 전략 요충지인 '하르그' 섬의 군사 시설에 선별적 공습을 단행. 이는 표면적으로는 이란 전쟁의 위기가 더욱 고조되는 것으로 보이나, 역설적이게도 미국과 협상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로 작동할 전망.

이란은 개전 이후 소위 '수직적 전쟁'과 '수평적 전쟁' 양면을 강화해 옴. 전자는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의 미국 군사 시설 및 민간 시설(아파트, 쇼핑몰, 호텔, 항만 등)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의미. 후자는 공격의 대상국을 GCC 5개국 및 기타 인접국으로 확대해 분쟁의 영향권을 넓히는 전략으로 과거 이란이 답습해왔던 전쟁 방식.

반면 미국의 전략은 다소 변화. 초기에는 반미 이란 정권의 '교체'에 집중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무력화'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임. 미국 내부의 문제(전쟁 물자 소진, 내부 여론 악화 등)와 현실적으로 이란 내부로부터의 혁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배경. 따라서 지난주 하르그에 대한 공격은 미국으로서는 중요한 전략적 선택.

모즈타바 정권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하르그는 핵심. 때문에 이란은 그전보다 미국과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예상됨. 남은 문제는 전쟁의 결정적 주도권을 쥐게 된 트럼프가 어디까지 이란을 압박할 것인지 여부. 예를 들어 이란의 핵 포기 등 완전한 항복을 요구한다면 협상은 난항이 예상.

이상에도 불구 당사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과 휴전의 성사 가능성을 기존 20%에서 60%로 상향함(전쟁 지속 가능성은 80%에서 38%로 하향). 또한 이번 전쟁이 원유 시장의 레드라인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 즉 미국이 이란의 원유 생산, 정유 시설을 파괴하지 않고, 이란 역시 아랍 걸프 지역의 석유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망. 양측에게 이는 상호 파괴적이고 실질적 이익이 없음.

금융시장은 이미 낙관적 전망을 일부 반영하고 있으나, 아직은 협상의 불확실성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당분간 높은 변동성이 유지될 전망.

특히 예측 불가능성이 높은 트럼프의 최종 목표 수정 가능성은 잠복 변수. 만약 이란의 석유 공급망 장악까지 고려한다면 상황은 다소 복잡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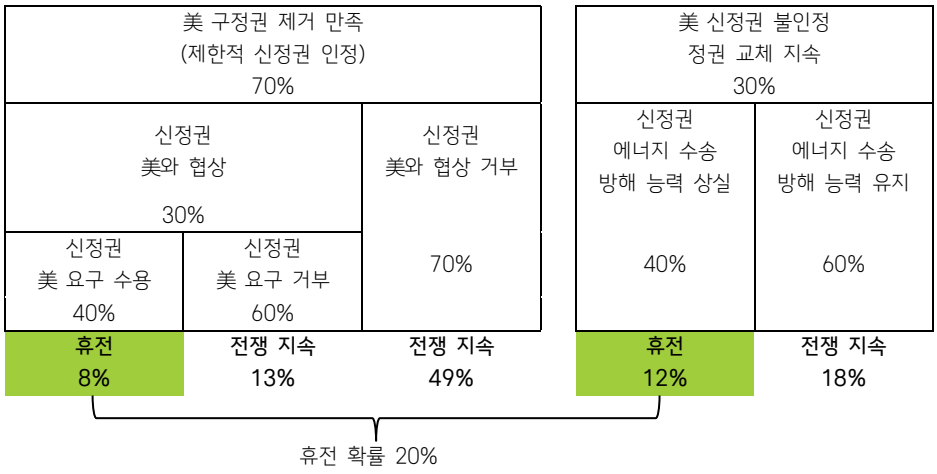
(다음 페이지에 계속)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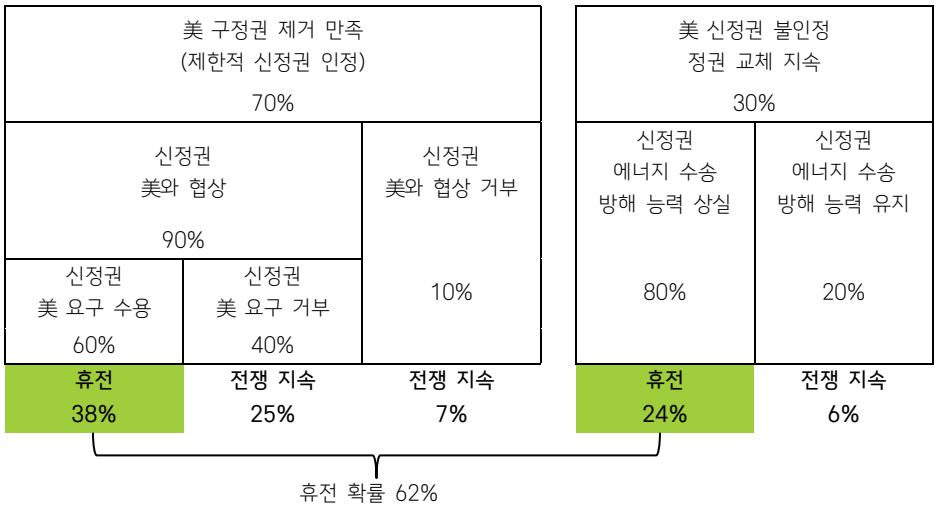
삼성증권

그림 1. 美의 이란 하르그 섬 공격 이전 시나리오 맵 : 휴전 20% vs. 전쟁 지속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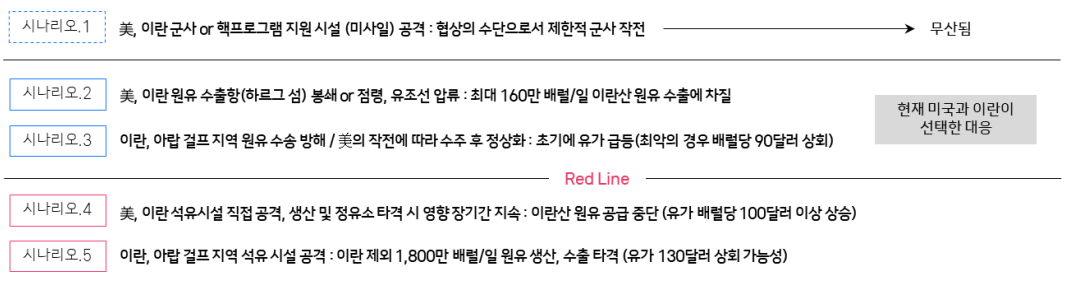
자료: 삼성증권

그림 2. 美의 이란 하르그 섬 공격 이후 시나리오 맵 : 휴전 62% vs. 전쟁 지속 38%



자료: 삼성증권

그림 3. 당사가 제시했던 미-이란 군사적 충돌 시나리오와 원유시장 영향



자료: CSIS, 삼성증권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